

|| 절세 위인의 명언 ||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은 민족분열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오늘의 참된 애국자라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을 떠난 참된 애국이란 있을 수 없다. 통일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의 과업이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성스러운 통일이국위업에 이바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성원들이 자기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역사와 후대들앞에 떳떳할 수 없다.

로 하여 하나의 강토우에서 반민권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며 하나의 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던 우리 겨레가 외세가 강요한 국토량단과 민족분열로 하여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해온지도 벌써 70여년이 되었다.

최근 공화국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화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고 하며 북남선언들을 무효있게 만들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자세와 태도부터 변해야

공화국을 시도때도 없이 마구 걸고드는 남조선당국의 상습적인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저들의 군비현대화는 《대북억지력》으로 미화해놓고 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에 대해서는 《위협》, 《도발》로 무력대고 걸고들고있는것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남조선당국의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가 남북관계를 약화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는것이다. 북남관계가 현 팽창과정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분열의 고통을 지속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는것이다.

민족의 통일속원을 이루어주시려고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하여 애국을 하여야 한다

주체81(1992)년 10월 27일, 조국산천에 단군이 붉게 물든 마가울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사업을 하던 강일선선생을 만나주시었다.

우성은 얼음장을 녹이는 봄빛과도 같이 따사로우셨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역방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하여 애국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공민족끼리범이로

주체89(2000)년 6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였다. 그때 북남공동선언문작성에서 무엇이 선인의 핵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라 하였다.

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이번에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헌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러니 이번에는 구시대의 유물은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 범공민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시었다.

《북의 요구에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연대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들은 성명 및 논평발표 등을 통해 이번 시정연설의 대남 및 대외정책적립장을 지지하면서 그에 호응해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진보세력들은 미국이 더이상 남북관계개선에 희망을 놓지 말고 남북관계복원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는 경우 북이 우리 민족을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는 정책을 꾸미고있던 주체36(1947)년 대내외정책이 뒤죽박죽이 되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남북통일선박선이 복원되어 두 북이 강하게 요구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비국산첨단무기도입중단 등을 둘러싸고 의견마찰이 해소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개선이 리오해질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보내 주신 초대장이 목사에게도 전해진것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외세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는 정책을 꾸미고있던 주체36(1947)년 10월 북조선원주민족통일선박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시고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협상의 방법으로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발기하시었다. 그리고서 목사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에게 친히 초대장을 보내주시었다.

평양에 도착한 목사와 일행은 깊은 밤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뜨겁게 포옹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존안을 뵈옵는 순간 목사는 격정으로 목이 짝 메어올랐다. 친히 자리를 권하시고 멀고 험한 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건강은 어떤가,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물음속에 목사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론 전세계가 크게 환영할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자주시보》를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는 북의 요구에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더우기 지금까지 《한미실무그룹》에 막혀 단 한결속도 남북관계개선이 미국의 승인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하며 남북관계정상화 및 평화정착의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북의 군사적행동을 《도발》이고 남조선이나 미국의 행동은 팬텀다발 불공정한 견해를 버리고 북을 불신하는 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이 주장하는 이중기준철폐요구를 받아들이고 남북미사이의 주요한안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조선반도평화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민족분열의 위기를 가시기 위한 참된 길을 찾지 못해 모태기던 김창준목사를 비롯한 남조선의 애국적인사들의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어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뜨거운 손길이었고 그 길에서 삶을 참담게 빛내어주시는 믿음의 중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믿음을 고이 간직하려는듯 초대장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목사는 눈물을 뜨겁게 적시었다. 이렇게 목사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집요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길을 향해 평양으로 떠났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소박한 그의 인사말을 들어주시며 농담의 탄압이 심한 조건에서 여러 식구들을 데리고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다고, 자신께서는 이미 위원장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애국적리노교인들이 반동들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잘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사실 남조선에서 교인들이 반동들



최근 남북관계문제와 관련하여 공화국이 밝힌 원칙적립장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분석평가하고있다. 남조선언론 《현합뉴스》, 《뉴스1》 등은 《법치였던 조선반도평화시계가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있다》고 평하면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널리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였던 남북대화의 재개를 알리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전문가들도 《북이 대북이중기준 및 적대정책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관계개선가능성》을 시사하였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본사기자

통일을 불러

목사가 안긴 북극의 세계 (3)



을 반대하여 싸우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의 애국투쟁을 높이 평가 해주시었다. 진정한 지남은 날들에 나뭇대로 민족을 위한다며 쌓이고 서서히 그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는 다정한 아버지정이었다고 사상이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자자구 새겨가는 김창준목사는 온몸에 새로운 힘이 한껏 솟구쳤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교인들은 기도를 하여도 우리 나라의 자주독립과 우리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하여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똑똑히 일깨워주시었던것이다. 마디마디 애국의 열의를 불러일으키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장군님의 천금같은 그 말씀을 듣고보니 지금껏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의에 참가한 다른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이 보고를 열렬히 찬동하였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투쟁과업이야말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목사는 그후 남북연석회의를 지지하는 군중대회에 이어 5.1절기념 평양시군중대회를 참가하여 아버지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우리르느 공화국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 보고 느꼈수 있었다. 목사는 한생 그리스도교를 믿어오던 단 한번만이라도 보고싶었던 《하느님》을 여기 평양에 와서 뵈었다는 무상의 행복감에 깊이 잠겨들었다. 민족의 아버지 김일성장군님 이시야말로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 저 하늘에서 강림하신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진정한 이 민족의 구세주, 영원한 태양을 받아들여신 우리 민족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가!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백이 되도록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김창준목사의 가슴속에 품어오던 진 심중의 토로였다. 본사기자



4월남북연석회의가 진행된 평양의 모란봉극장

《남북관계발전과 평화증진을 위한 고무적인 제안》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이 분석평가—

는 파란 불》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남북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수 있게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남북관계의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나는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전문가들도 《북이 대북이중기준 및 적대정책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관계개선가능성》을 시사하였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본사기자